

우리 삶을 뒤흔드는 내밀한 힘
질투의 예술사·질투의 인문학



질투
피터 투이 지음

“질투심을 느낄 때, 나는 네 번 괴로워한다. 우선 질투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 질투하는 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괴롭고, 내 질투심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워 괴롭고, 내가 그런 시시한 감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괴롭다.”

위 언급은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의 질투에 대한 생각이다. 질투라는 감정은 지금까지 수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 또는 동기가 되었다. 질투라는 감정에 휩쓸려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질투는 흔한 감정이다.

오늘날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질투가 많은 시대다. 단적으로 말하면 질투는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는 비극의 씨앗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다. 때로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파괴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인 질투는, 기독교에서는 일곱 가지 죄악 중의 하나로 꼽는다.

캘거리대학교 그리스로마연구학과 피터 투이 교수가 펴낸 ‘질투’는 우리 삶을 뒤흔드는 내밀한 힘을 분석한다. 서양 고전학자인 지은이는 유사 이래 인간이 그려낸 질투의 예술, 질투의 문학,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발현된 질투의 양상을 한 장면 한 장면 열거 보인다. 한마디로 책은 질투의 예술사이자 질투의 인문학이다.

책의 기저에는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생물학과 인류학, 사회학의 성과가 깔려 있다. 물론 질투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질투와 부러움이 서로 다른 것인지, 과연 부러움이 질투보다 더 안전한 감정인지도 논쟁 중이다.

저자는 지독한 병적 질투는 병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인류가 질투라는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진화생물학에서 질투는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매커니즘으로 간주된다. 질투는 때론 범죄를 낳지만, 예술적 성취를 더 많이 낳는다. 공평함을 요구하는 질투가 없다면 사회 정의도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자는 세계의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시대에 따라 질투가 해석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니케북스·2만2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동물행동학 관점에서 사랑과 섹스 들여다보기

인간의 섹스는 왜
펭귄을 가장 닮았을까

다그마 반 데어 노이트 지음



몇 년 전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17~42세 남녀를 대상으로 섹스 이유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욕정이 일어나서’, ‘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르몬이 넘쳐서’, ‘심심해서’, ‘결혼했으니까’, ‘두통 해소를 위해서’ 등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섹스를 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 또한 섹스가 단순히 감정 없는 행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인류는 결국 멸종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일어난 최초의 섹스는 어떤 것이었을까. 학자들은 40억 년 전 박테리아와 유사한 세포가 생겨났을 당시, 자기 복제를 통한 번식이 사실상 ‘섹스’나 다름없었다고 본다.

이후 40억 년이 지난 오늘날 인간이 정의하는 섹스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랑행위, 즉 침대에서 동침하는 행위를 섹스로 생각한다. 물론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교접하다’, ‘교미하다’, ‘몸을 섞다’, ‘짝을 짓다’로 표현된다.



일부일처제인 펭귄은 성행위나 가족 형태에 있어 인간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정의에는 남녀의 성기에 대한 관점과 고민이 담겨 있다. 도덕과 윤리라는 영역 안에서 섹스는 음란하게 치부된다. 이와 달리 “인간의 본능은 생각보다 동물의 왕국 가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네덜란드의 유수한 잡지의 편집인인 다그마 반 데어 노이트가 펴낸 ‘인간의 섹스는 왜 펭귄을 가장 닮았을까’는 “섹스에 대해 예리하고 재치 있게 다룬 최고의 동물행동학 책”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책은 다윈도 알지 못한 지구상 모든 생명의 사랑과 성에 대한 상식과 오해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 섹스는 어떤 의미

가 있을까? 더불어 인간은 이들의 사랑과 성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물은 일부다처제(고릴라, 바다사자)뿐만 아니라 일부일처제(펭귄, 일처다부제(꿀벌), 다부다처제(보노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섹스를 나눈다. 심지어 동성애마저 일상적인 애정 표현의 방식이며 인사나 복종의 의미로 섹스를 활용한다.

“동물 세계에서도 암컷의 외도는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수컷은 집을 떠나고, 암컷은 혼자서 새끼를 먹여 살리고 키워야 한다. 그래서 암

컷은 끝까지 사실을 숨긴다. 잘만하면 이웃 무리의 좋은 유전자도 물려받고 동시에 착한 가정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책에는 흥미로운 주제의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덩치 큰 고릴라의 페니스는 왜 작을까’, ‘인간은 천성적으로 일부일처제를 거부한다’, ‘원숭이가 엉덩이를 높이 들 때는’, ‘영무늬의 생식기는 어디로 숨었나’ 등 동물행동학의 관점에서 사랑과 성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새끼를 돌보고 보호하는 기간이 길수록 일부일처제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소나 양 등의 목초 동물들은 태어나마자 견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자연적으로 번식을 위한 섹스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동물도 지능적으로 외도를 하고, 질투를 하고, 이에 대해 응징을 하기도 한다. 동물과 인간의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것은 오늘의 많은 싱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나를 가장 실망시킨 인식은 사랑과 섹스가 결핍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세포들의 후손이고, 그들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서로 융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에서 영감을 받기도 한다. 오늘의 우리라고 다른 게 뭐가? 나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할 짝이 없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우니까!”

〈정향책방·1만3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구한말 서로 다른 세상을 꿈꿨던 김옥균과 홍종우



그래서 나는 조선을 버렸다
정명섭 지음

승자의 해석이 역사라면 패자의 기억은 설화가 된다. 그래서 설화에는 현실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좌절과 바람이 들어 있다. 가장 전형적인 한국적 설화가 바로 ‘야기장수 이야기’다.

뒤집어보면 우리 역사는 다른 세상을 꿈꾸다가 좌절했던 인물들과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특히 한국 현대사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어설피지만 진지한 이들이 만들어 낸 서투르고 치열했던 시간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명탐정들’, ‘조선백성실록’의 저자 정명섭이 펴낸 ‘그래서 나는 조선을 버렸다’는 김옥균과 홍종우에 대

한 새로운 사실과 주장을 바탕으로 한 인문교양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김옥균과 그의 이름에 가려진 홍종우에 얽힌 숨겨진 역사 또한 지난 십여 년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홍종우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온 여권(집조)을 위조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나, 김옥균이 사망한 장소가 널리 알려진 것처럼 방 안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주위에 일본 해군의 고위장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김옥균 암살의 배후를 마치 추리소설처럼 들여다본다.

이 둘은 모두 근대의 격랑에 휘말린 조선이 취할 수 있는 양극단에 위치한 개혁가였다. 그러나 조선이 조선을 버리고 다른 나라가 되기를 꿈꿨던 그 둘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 끝내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었다.

〈추수밭·1만6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5년간 비밀에 휩싸여 있던 비극적 가족사



벤트로드
로리 로이 지음

큰누나의 죽음 이후 고향을 떠난 아서 스콧. 이야기는 그의 가족이 흑인 폭동을 피해 고향 벤트로드로 돌아가며 시작된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고향에는 여전히 ‘그 시간’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아서 가족이 이사를 뒤 공교롭게도 마을에서 소녀가 실종되고, 이웃들은 타인이나 다름없는 아서에

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미스터리 소설계의 오스카상이라 칭할 만큼 권위를 자랑하는 2012년 에드거 상 최우수신인상을 수상한 로리 로이의 ‘벤트로드’는 거대한 서스펜스를 그린 다. 소설은 아메리칸 고딕 소설의 전범 ‘고딕’과 노아의 완벽한 융합’이라는 격찬을 받은 바 있다. 남자는 선혈도, 흥기를 든 살인마도 없지만 아서의 집을 향해 쉽 없이 조여드는 공포는 숨 한번 쉴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작가는 서스펜스의 근간은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라는 예감, 그런 예감을 자아내는 분위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예리하게 형상화한다. 〈비책·1만4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화와 문화 상호관계 연구의 기본서



지구화와 문화
피테르세 지음

세계화와 문화의 상호관계 연구에서 기본서 역할을 하는 책 ‘지구화와 문화’가 출간됐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번역총서인 이 책은 문화인류학적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 학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 문화인류학과 지구화, 문화에 대해 개론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

공한다. 캘리포니아대 사회학 펄리츨프 교수인 안 네데르베인 피테르세는 ‘혼종성’이라는 핵심 단어로 6장에 걸쳐 세계적 뒤범벅 또는 혼종화의 시각을 전개한다. 1장에서는 지구화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들의 시각과 이 시각들의 광범위한 시간들을 논의하고 2장은 지구화에 대한 심층적인 역사적 접근의 윤곽을 그린다. 3장에서는 독자들을 지구화와 문화 논란을 데려가고 4장은 혼종화로서 지구화에 대한 기초적인 논제가 펼쳐진다. 5장은 지구적 뒤범벅을 장기 지속이라는 축에서 논한다. 〈에코리브르·1만6000원〉 /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 743㎡ | 전문병원원 및 피부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당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